



대승종 포교사단 방법기동순찰대원들이 술집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방법순찰하며 포교한다

## 대승종,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돕기도

### 대원 전국에 10만명...지역문화재 지킴이 계획

대승종(총무원장 일오)이 불교계에서는 드물게 포교사단 산하에 방법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방법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선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 포교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대승종이 종단 차원에서 방법기동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서울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국민간기동순찰대가 대승종 포교사단 산하 단체로

가입하면서부터다. 한국민간기동순찰대 중앙 단장을 맡고 있는 윤남전(61)씨 등 간부들이 대승종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윤남전 단장은 '각 동의 지대장 등 간부나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수계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회원이 아닌 준회원은 꼭 불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현재 대승종 포교사단 방법기동순찰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전국적

으로 10만 명에 가깝다. 서울에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9개 구에서 3천5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인천에도 7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강북구 미아2·3동 대원들은 지난해 서울 시로부터 서울시민대상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법 순찰 활동을 펼친다. 가솔 및 비행 청소년 선도가 주임무다. 술 취한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거나 화출소로 인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미아8동 지대장을 맡고 있는 정

하사(57세)는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처음엔 반항하는 경우도 많지만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순순히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준다고 내 자식이란 생각이 타이트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선도 등 방법 순찰이 전부 아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 등을 대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등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찰국장 심상필(58)씨는 "일년에 두 차례씩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관광 행사를 마련하는 등 방법 순찰보다는 '봉사 순찰'에 더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대승종 총무원 감찰부장 송정스님은 "앞으로는 방법 순찰, 봉사뿐 아니라 지역 문화재 지킴이의 역할까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전적

### 54권71책 내년 11월까지 보존처리

보존시설 미흡으로 유물훼손이 우려된 경북 경주 양북면 기림사(祇林寺) 유물전시관의 보물 제 959호 비로자나불 복장전적(佛藏典籍)이 보존처리된다.

경북 경주시는 23일 지난해 9월부터 경남 양산시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임시 위탁보관했던 복장전적 54권 71책을 최근 서울로 옮겨 문화재

보존연구소에 의뢰, 내년 11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보존처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로자나불 복장전적은 지난 80년대 초 건립된 기림사 유물전시관에 보관해 왔으나 보존시설이 허술해 습기로 종이에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이 가속돼 왔다.

김재경 기자

## 이수현씨 1주기

### 정수사 추모법회

정수사(주지 원광)는 26일 법당에서 고 이수현씨의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 전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현 의인의 1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법회는 이수현장학회 장학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가졌다.

이수현장학회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로운 이들을 추모하는 사업,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청소년 격려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게 된다. 앞으로 2002년 연말부터는 매년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 미륵종 정기중앙총회 새해 사업·예산 확정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21일 총무원이 있는 부산 관음사에서 정기중앙총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중앙총회에서는 종보 발행, 포교사 자격고시 시행, 미륵종 전작 및 선원개원, 3회 중앙연수 교육, 해외 성지순례 등을 확정하고 신년 예산 2억여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부산=천미희 기자

## 법회·공연 등 다양한 성도절 행사

### 조계사 탐돌이·철야정진·유미죽 공양 수련포교당 '불자들의 작은 음악회' 전야제

전국의 사찰들이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절(成道節)인 20일을 전후해 법회와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봉행했다.

서울 조계사는 19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탐돌이와 정진, 108배 정진 등의 철야 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자정을 기해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고 들었다는 유미죽(乳味粥) 공양시간을 갖고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불교사찰연합회는 20일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성도절기념

청소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 비구니정림회는 20일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4천여명의 대중에 참석한 가운데 성도절 대법회를 열고, 보문중학교 김홍섭 교사에게 '자랑스런 불자상'을 수여했으며, 대전 보문중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원 포교당은 19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판서를 보살 봉안식에 이어 '불자들의 작은 음악회'로 성도절 전야제를 열었다.

김재경 기자



광주불교사찰연합회가 20일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청소년한마당' 행사.

## 3천배 기도회관 전포동에 짓는다

### 부산 감로사

부산 감로사(주지 혜환)가 일반 대중을 위한 '3천배 참회기도회관'을 건립한다.

감로사는 피난시설 자은, 향곡, 성철, 창당, 운하 등 당대의 여러 고승들이 주석했던 곳으로 지난 51년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기도법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음력 2월 10~14일 '3천배 참회기도법회'를 열었다.

기도회관은 3천배 참회기도법회에 참석하는 대중들을 위한 공간. 전포동 1천200여평의 부지에 전체 5층 규모로 오는 2004년 완공할 계획이다. 기도회관에는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해 수행단체 사무실과 선방,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051)809-0926. 부산=천미희 기자



## 교사대상 명상 특수직무연수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총재 성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부산경남 지역 교사 98명을 대상으로 여여선원에서 명상 특수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명상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춘해대학 요가응용과 이선교수의 지도로 올바른 이완, 호흡, 마음 집중법 등 명상의 이론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설봉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석조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장, 정장용 부산정보고교장, 박문원 동대대 교수, 이육태 파라미타 부산 사무국장의 교양강좌를 마련, 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 훈련장병 수계대법회 봉행

육군 부산훈련소(소장 이광휘) 육군 연무사주지법사 해원은 19일 대법당에서 '훈련장병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계사인 조계종 기림사장 현고스님을 비롯 조계종 교육부장 도현스님과 육군훈련소 각 지휘관과 참모 등 모두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천4백여 수계 장병들은 조계종 포교부장 상은 스님이 낭독한 참회문을 따라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삼보전에 참회했다.



##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취임식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에 선출된 도성스님(백우정사 주지)은 23일 제주종무원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봉행했다.

종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도성 스님은 "원융화합의 정신으로 교단의 발전과 제주지역 불교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를 비롯해 보현봉사단, 법륜불자회 등 지역 수행단체들과 함께 사회정화 운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목조각장' 기능 보유자 지정 등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문화재청이 지난달 문화재위원회 4분과(무형문화재) 심의를 거쳐 발표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인정이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보유자 외에 H씨, J씨 등 두 명을 새로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고, Y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무형문화재 지정 논란

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목조각' 하면 사실상 불상 제작이 주 활동인데도, 문화재위원회 4분과 위원 12명 가운데 불교조각을 전공한 문화재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화재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

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이번이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예정된 장인은 그동안 무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조사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J씨와 Y씨가 기능 보유자와 보유자 인정예고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조사 보고서

## 심우사 하천옹벽 강제철거

### 부산 수영구청 스님·신도 7명 2~3주 부상

사찰에서 쌓은 하천부지의 옹벽이 이웃 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 강제 철거되면서, 스님과 신도 등 7명이 잔치 2~3주의 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수영구 풍안3동에 소재한 심우사(주지 학찬)는 사찰에 인접한 하

천으로 인해 토사가 계속 유출되자 관할구청인 수영구청(구청장 유재중)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취득해 옹벽을 축조했다. 지난 98년 3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옹벽을 축조한 심우사는 이후 수영구청에 매년 하천 점용료까지 납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옹벽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인접 토지 소유주가 심우사에 계속 항의를 해 오고 행정집행 소송까지 제기해 수영구청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17일 심우사가 쌓은 옹벽을 강제 철거했다. 이때 구청 헬기반이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몰카음이 벌어져 심우사 신도 2명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심우사는 22일 수영구청장과 헬기반원을 남부경찰서에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김재경 기자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이하 대불어)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한달에 한 번씩 각각 발행하는 '연꽃지'와 '법회용 교재'를 3월 부터 한달 내용을 합쳐 한 번만 제작하기로 했다. 이유는 조계종 포교원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연꽃지 제작 후원금'을 대폭 삭감해 대불어가 늘어나는 적자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포교원은 97년부터 어린이 포교의 일환으로 포교지 제작 후원을 위해 매년 5천만원~6천만원의 예산을 대불어에 지원했다. 하지만 포교원이 지난해 3천 7백만원에서 올해 5백만원이 삭감된 3천 2백만원으로 지원을 줄이자 대불어가 불가피하게 이번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두 권의 어린이 포교지가 한 권으로 합쳐져 어

린이 포교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린이 포교에 대한 종단의 의지가 미약해지게 아 나는 우려다.

교계 수행단체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이지만 특히 어린이 포교 단체들의 환경은 더 열악한 편이다. 그래서 종단밖에 후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세속불자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조계종은 지난해 5천 4백여 만원에서 올해 4천 6백만원으로 해마다 어린이 포교 예산을 줄이고 있다.

대불어 관계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종단에 호소하며 지원금 확대를 건의하고자 2월 1일 포교원장 스님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과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알리고 대책을 논의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김주일 (취재2부 기자)

**게시판**

▲봉축표어 공모=조계종 봉축위원회는 봉축표어에 사용될 봉축표어를 30일 오후 6시까지 공모한다. 봉축표어는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중생이 모두 함께 공경하면서 나갈 수 있는 8글자로 압축된 내용이어야 한다. 접수: (02)725-6641, nhk@buddhism.or.kr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은평구립도서관은 문화교실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컴퓨터, 교양으로 나눠 3월부터 두 달 동안 운영하며 모집인원은 아동 265명, 성인 115명으로 접수는 2월 4일부터다. (02)385-1671

▲자원봉사자 모집=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료 경로식당 일일 이용자 접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봉사. (02)2203-3677

▲사회복지사 모집=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2002년 졸업예정자로 운전과 PC가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福매주** 100% 쌀로 빚은 전통 양조음료

공정 무역을 지향하는 참사랑이 내세운 100% 쌀로 빚은 전통 양조음료. 100% 쌀로 빚은 전통 양조음료. 100% 쌀로 빚은 전통 양조음료.

주인등록등본,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각 1통 등으로 인터넷과 우편이나 내방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마감은 30일까지. (02)577-5800. 담당자 김영희 E-mail: niswc@chollian.net

▲아동도서 후원=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개관 준비중인 용호어린이 도서관에 후원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도서 후원을 받는다. (051) 628-6737.

▲불교인권위 간사들기성금 모금=불교인권위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조혜은 간사 돕기 성금을 한다. 조간사는 투병중에도 불교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계좌번호:우체국 010579-02-058527 박용모(진관)